

(붙임)

사진자료 및 안내자료



발굴 조사지역 전경



흙사문 전경

덕수궁 흥덕전 주변지역 발굴조사

2024



발굴조사 결과

- 발굴조사는 흥덕전 전각 전면의 문지와 부속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흥덕전의 외삼문(외삼문)과 우측에 위치한 외행각(외행각) 및 내삼문(내삼문)과 우측에 위치한 내행각(내행각)을 비롯하여, 어재실(어재실) 등의 위치와 규모가 확인되었다.
- 흥삼문과 소안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어졌으며, 긴 다듬은 돌로 기둥의 초석을 받치는 기초를 만들었다. 행각은 흥덕전이 바라보이는 쪽은 기둥만 세워 개방되어 있고, 뒤쪽은 벽과 창을 만들어 막힌 구조이다. 흥삼문의 앞쪽은 높은 축대를 쌓고 그 아래에는 선원전에서부터 연결되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 어재실은 흥덕전의 남쪽에 위치하며, 정면 6칸, 측면 2칸의 건물이나 훼손이 심해 긴 다듬은 돌로 만든 건물의 기초만 일부 확인되었다.

- 발굴조사 결과 선원전 영역의 전각이나 부속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존재하였던 건물터와 우물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특히 건물터에서는 온돌과 부뚜막 등이 확인되어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흥덕전이 건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덕수궁 선원전 영역 흥덕전

흥덕전의 위치 _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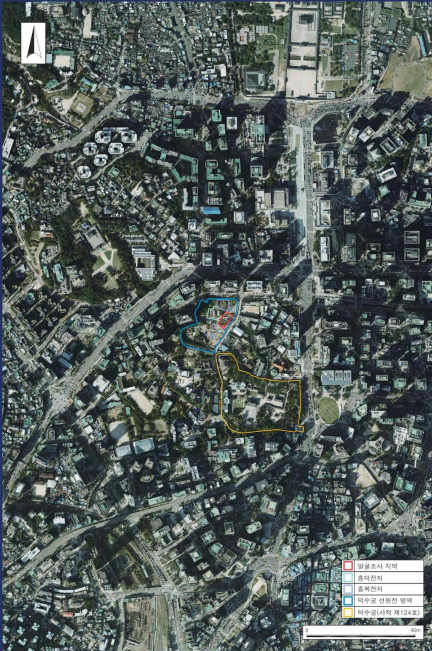
발굴기간 _ 2024.04~2024.06

발굴면적 _ 1,252㎡(1차-972㎡, 2차-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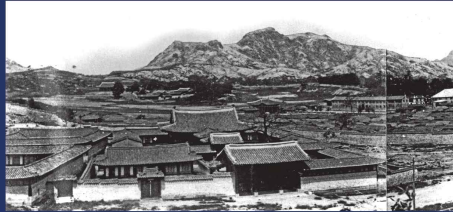
조사기관 _ 재단법인 누리고고학연구소

덕수궁 흥덕전의 역사

- 1900년 3월 흥덕전 신축
- 1900년 10월 14일 덕수궁 내 선원전 화재로 소실
- 1901년 2~6월 영성문 내 선원전 이전 건축
- 선원전 축조로 인해 흥덕전은 현 위치로 이전
- 1919년 흥덕전 전각과 소안문, 내행각은 창덕궁 행각 부재 사용으로 훼손



덕수궁 흥덕전 위치



흥덕전 전경(1903년 촬영)



흙사문 전경(1921년 촬영-1919년 겨울 흥덕전과 내행각, 소안문이 훼손된 모습)

덕수궁 흥덕전 개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덕수궁 선원전 영역에 위치하며, 크게 선원전^{현대 황회의 어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 흥덕전^{어전}이던 보문과 모사, 국상 때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모시던 빈전, 흥복전^{후연으로 사용-영종대왕 뒤 궁 내 흥안 신위를 모시던 전각}이 190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1919년 고종 승하 후 훼손^{영종대왕} 복구도 이루어 지게 된 곳이다.

흥덕전(興德殿)은 고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영성문 내 선원전이 축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선원전이 축조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 흥덕전은 어전을 선원전에 봉안하기 위해 전일^{후고궁}과 풍요^{후고궁} 등이 원래^{후고궁} 하거나 작한데^{후고궁} 영안^{후고궁}이나 풍비의 조성이 신위에 제사를 지내어 같은 제례를 지내는 곳으로 이용되었으며, 각 지역의 어전^{후고궁}의 모형을 모시고 모사하는 이안청(移安廳)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04년 효정왕후(현종 계비)와 순명효황후(순종비), 1911년 순헌황귀비(고종 후궁, 영친왕 친모)의 승하 때는 빈전^{후고궁}상여가 나갈 때까지 영안^{후고궁}의 관을 모시던^{후고궁}으로 사용되었다.



- | | |
|---|-----------------|
| ① | ① 조사지역 전경 |
| ② | ② 흙사문 전경 |
| ③ | ③ 소안문 전경 |
| ④ | ④ 내행각 전경 |
| ⑤ | ⑤ 외행각 전경 |
| ⑥ | ⑥ 흥덕전 건립 이전 건물지 |

